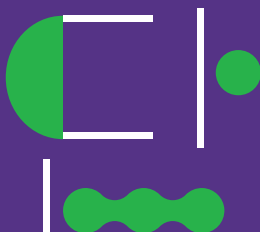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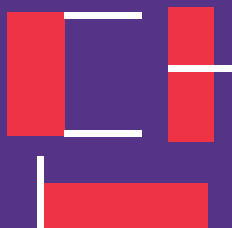
으뜸 端

2022. 9.21.수
~ 9.24.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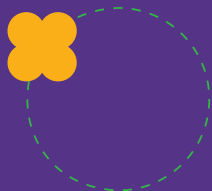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월화거리



오직하나 單



우리 團



2022

단단단

페스티벌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으뜸 축제





단단단은 으뜸 단(端), 오직하나 단(單), 우리 단(團)의 의미로
'오직 하나뿐인 우리의 으뜸 축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단단페스티벌은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특히 강원도의 전통문화가 중심이 되어
강원도와 지역의 예술가들에게 공연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가장 강원도다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하고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기획되었습니다.

단단단페스티벌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영산홍콘서트,
사물놀이의 창시자인 김덕수와 앙상블 시나위의 합동공연,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해 호평을 받은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심청가) 이수자 조주선의 합동무대,
배리어프리(barrier free)공연인 아가멤논이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펼쳐지고,
강원도 8개 시군 전통연희팀들의 공연인 강원의 유산, 강릉지역예술인들의 무대와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이 월화거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을 단단단 페스티벌로 초대합니다.
선선한 가을, 따뜻한 공연으로 뜨거운 감동을 만끽하시는 나들이 되길 바랍니다.

2022
단단단
페스티벌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 공연동

21일
수요일

15:00 | 19:30
풍편에 넋짓 들은 <아가멤논>
천하제일탈공작소

22일
목요일

19:30
길 위의 시나위
김덕수, 양상불시나위

23일
금요일

10:00
어린이전통연희한마당
보람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킨더스쿨어린이집
해맑은어린이집, 온새미로어린이집

19:30
조주선×토리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이수자 조주선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

24일
토요일

15:00
영산홍에 물들다 <영산홍콘서트>

월화거리 은행나무 앞

23일 | 금요일

11:00
강릉농악
(사)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보존회

14:00
아페라와 함께하는
공연 <힐링>
아페라(A-pera)

13:00
영월에 피련다
현(String)타(타)

15:00
속초사자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보존회

월화거리 버스킹장

23일 | 금요일

11:00
아기자기하게 찾아온 <뒷골목 민요>
퓨전국악 그룹 아기자기

11:30
퍼포먼스 난타
퍼포먼스 두우레 난타

13:00
설장구 놀음
열혈설장구

13:30
BLOOM : <추억이 핀다>
사닉

14:00
코레오, 센트럴댄스
하슬러

14:30
수담과 함께하는 흥통방통 미니 콘서트
가야금 양상불 수담

15:00
전통무용
전통문화기획사 춤빛

15:30
눈과 귀를 소유하다
퓨전국악 소유

16:00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신명나는 해금!
은한

16:30
도란도란 음악 버스킹
도란

24일 | 토요일

11:00
평창서낭굿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

15:00
리듬 키키타카
극단 청명

13:00
함경도 광천
마당놀이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통소 신아우보존회

16:00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노리소리강원두레

17:00
강원유희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태극

14:00
절대가인 <歌歌歌>
절대歌인

24일 | 토요일

11:00
흥과 신명의 소리길
우리가락 예술원

11:30
가락때기
(사)아트컬처퍼포먼스 난리

13:00
아랑, 가야금에 물들어 아름다움을 탐하다
아랑

13:30
춤의 향연
강릉파인무용단

14:00
파이어댄싱
파이어앨범

14:30
바람타고
오죽락은지국악연구소

15:00
학산오독때기와 민요
강원민요연구원

15:30
춤북
더얼쑤

16:00
나와라 뚝딱! 이야기 한마당
더문화로움

16:30
퓨전국악
플레이그루 the 아라

풍편에 년쫓 들은 <아가멤논>

천하제일탈공작소

21일 수요일
15:00 | 19:30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 「아가멤논」이 탈춤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비극적인 서사를 탈춤꾼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마당극인 전통 탈춤을 현대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특히 풍편에 년쫓 들은 아가멤논은 누구나 차별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무장애) 공연으로 수어통역, 문자통역,
음성해설이 제공됩니다.



길 위의 시나위

김덕수 x 양상블시나위

22일 목요일
19:30

남사당 놀이꾼인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
20대의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앞세워
사물놀이라는 새로운 예술 영역을 구축한 예인.
이제는 전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사람.
김덕수, 그가 처음으로 강릉에 옵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로서 풍물놀이를 새롭게 공연예술로 발전시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김덕수와 양상블 시나위의 콜라보 공연입니다.

「김덕수 x 양상블시나위」는 국악장르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공연으로
다양한 관객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강렬하고 폭발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사물놀이로 우리 민족이 가지는 특별한 신명을 김덕수 명인
그리고 양상블 시나위와 함께 제대로 만끽해 보세요.



길 위의 시나위

김덕수 × 양상블시나위

김덕수패 사물놀이

문굿, 길놀이

연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문굿'은 문을 열어 신을 맞이하며 좋은 기운을 몰고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문굿과 길놀이를 통해 단순히 객석을 지나는 통과의를 넘어 관객들과 같은 공간의 기(氣)를 공유합니다.

삼도농악

각 지방마다 말씨가 다르듯이 농악가락도 각 지역마다 독특한 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남, 호남, 중부 지역에서 연행하던 농악가락 중 중요한 가락들을 모아 하나의 연주곡으로 만든 것이 바로 '삼도농악가락'입니다. 삼도농악가락은 사물악기(꽝과리, 징, 장고, 북)가 완벽하게 호흡이 맞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물놀이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김덕수 X 양상블시나위

도살풀이 시나위

도살풀이장단 위에 가야금, 양금, 아쟁,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들이 테마를 변주하며 표현하는 곡으로 북을 비는 기운을 담았습니다.

마왕을 위한 시나위

올림채장단과 클래식 음악이 융합된 무대로 슈베르트 가곡 마왕의 리듬과 자진모리장단의 리듬을 넘나들며 긴박하고 다이나믹한 시대를 시나위 스타일로 표현한 곡입니다.

함께

동해랩소디 (판굿)

풍어를 기원하던 동해안 별신굿에서 영감을 얻어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며 북을 비는 즉흥 연주곡으로 풍물패의 진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이전통연희한마당

보람어린이집, 파랑새어린이집, 킨더스쿨어린이집, 해맑은어린이집, 온새미로어린이집

23일 금요일

10:00

오늘은 우리가 주인공!

강릉시 5개 어린이집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오릅니다.

우리의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준비한 멋진 시간.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한국의 전통, 강릉의 이야기.

많은 분들의 관람과 응원을 기다립니다.

보람어린이집

난타, 북, 드럼이 어우러져 신명 나는 아리랑 연주



파랑새어린이집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범일국사와 학바위에 얽힌 전설을 바탕으로 꾸며진 설화극



해맑은어린이집

신명 나는 장구 연주와 우리민요 합창



킨더스쿨어린이집

아리랑과 부채춤



온새미로어린이집

영신행차와 신통대길 길놀이



조주선×토리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이수자 조주선,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

23일 금요일
19:30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는 민요에서 각 지역에 따라 구별되는 음악적 특징을 뜻하는 순우리말 '토리'들이 모여 음악을 만든다는 의미로 판소리·경기민요·서도민요·아카펠라 전문가로 구성된 팀입니다.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 JTBC 풍류대장에 출연해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악에 익숙한 장년층에게는 아카펠라 음악을, 아카펠라가 익숙한 청소년과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국악의 신선함과 흥겨움을 선보이는 일당백 토리스! 이번 공연은 조주선 교수와 함께 하는 수궁가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조주선×토리스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심청가) 이수자 조주선, 국악아카펠라그룹 토리스

창부타령 x Every Breath you take

JTBC 풍류대장 1라운드에서 선보인 곡으로, 창부타령은 무당들이 부르던 무가에서 파생되어 점차 세상에 퍼지면서 대중들이 즐겨 부르게 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록그룹 'The police'의 every breath you take가 만나 신선한 사운드를 선보입니다.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

심청가의 대목 중 하나로 심청의 효성에 하늘이 감동하여 심봉사가 결국 눈을 뜨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녀의 서로를 향한 깊은 그리움이 오랜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만남으로 완성되는 감격을 노래합니다.

Amazing grace x 아리랑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과 찬송가로 널리 알려진 외국곡 'Amazing grace'를 매시업 했습니다. 자연과 음악의 어우러짐, 국악과 양악의 절묘한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벵노래

벵노래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 선보이는 벵노래는 경상도 지방의 민요로, 고기를 잡기 위해 노를 젓는 어부들의 역동성이 살아있는 곡입니다. 국악의 다양한 시김새와 서양 화성을 아카펠라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여유와 방아요

여유와 방아요는 판소리 '심청가'에 나오는 '방아타령'의 한 부분으로, 심봉사가 맹인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길에 소리하는 대목입니다. '방아타령'의 중독성 있는 구절을 '토리스'만의 국악아카펠라로 표현한 곡입니다.

시리령실근

"시리령 실근 톱질이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실근 속삭 톱탁!". 흥부의 박에서 나오는 쌀과 은금 보화의 내용처럼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노래합니다. 흥겨운 재담과 격조 있는 소리로 절묘한 시김새가 지닌 판소리를 아카펠라로 편곡한 곡입니다.

조주선 x 토리스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함께 합니다. 왕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온갖 핑계를 대는 토끼의 재기가 돋보이는 대목으로, 이 시대 풍류대장들의 풍성한 사운드로 여러분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영산홍에 물들다「영산홍콘서트」

24일 토요일
15:00

영산홍가는 음력 4월 15일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맞이하기 위해 강릉주민들이 햇불을 들고 부르던 강릉의 민요로 그 모습이 마치 활짝 핀 영산홍 꽃 같다 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사)강릉단오제위원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 단오의 노래를 대중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9년에는 시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합창곡으로 편곡하여 5,000여명의 시민들과 대합창을 진행했고, 2020년에는 영산홍가를 평기한 음악으로 편곡하고 신나는 안무를 더해 온라인을 통해 영산홍챌린지를 즐겼습니다. 2021년 2월에는 일러스트 영상으로 영산홍가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으며 6월에는 2020년의 영산홍챌린지를 확대시켜 영산홍 댄스챌린지와 노래 챌린지를 진행하고 11월에는 첫 번째 영산홍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어김없이 영산홍 댄스챌린지와 노래 챌린지를 진행했고 기꺼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영산홍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2022년 9월 24일 영산홍에 물드는 하루, 영산홍 콘서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영산홍에 물들다「영산홍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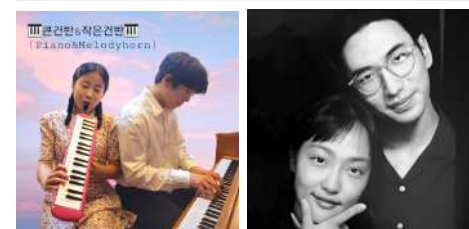
영산홍, 디스코를 만나다.

2020년 영산홍가 평기 버전을 만든 강릉 대표 로컬밴드 이태영밴드가 영산홍을 뉴트로 디스코 스타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평기 음악이 업그레이드 된 디스코에, 최신 트렌드인 뉴트로를 적극 도입해 다시 태어난 뉴트로 디스코 영산홍! 브라스 파트를 보강해 흥을 더해 더 경쾌하고 더 신나는 영산홍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산홍, 트로트가 된다.

민요로 구전되어온 영산홍가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트로트 가락으로 제작했습니다. 원형의 가사와 뿌리를 살리고,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과 멜로디가 더해져 새롭게 탄생한 신영산홍가 트로트 버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성 트로트 가수 한상아 씨의 무대로 꾸며집니다.



영산홍, 크로스오버로 물들다.

국악, 어쿠스틱 기타, 보사노바, 블루스, 헤비메탈로 연주되는 영산홍가로 다양한 장르와 크로스오버된 영산홍가를 만납니다. 다양한 현악기가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 크로스오버밴드 앙상블현, 기타리스트 최만선과 최형남의 블루스 잼 연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산홍 노래챌린지 수상팀들이 준비한 합동공연으로 장르의 벽을 허물고 전통과 트렌드의 접목을 시도하는 이색적인 퓨전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영산홍에 물들다「영산홍콘서트」



영산홍, 춤을 추다.

하나의 영산홍가 리듬이지만 색다른 퍼포먼스와 개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영산홍에 맞춘 개성 있는 댄스와 칼군무로 영산홍의 매력을 댄스팀 Y2K가 선사합니다.



영산홍, 새롭게 피어나다.

영산홍 콘서트의 피날레를 EDM으로 장식합니다. 모든 축제의 마무리는 신나야 합니다. DJ B.WAVE의 리믹스로 전 출연자가 흥겨운 EDM 파티 분위기 속에서 함께 모여 이번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11:00

강릉농악

(사)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보존회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은 마임 요소와 음악적 요소, 연극적 요소가 합쳐진 종합 연희 예술로 대한민국 농악 중 유일무이한 농사풀이 농악으로 1년의 농사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농악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당당히 한국을 알리고 있는 강릉농악으로 월화거리에서 진짜 신명을 맞이해 보세요.



13:00

영월에 피린다

현(String)打(타)

현(String)打(타)는 영월을 대표하는 전문예술단체인 살롱더스트링(현악)과 터를일구는사람들(전통타악)의 연합팀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영월에 피린다」는 영월의 낙화암을 주제로 한 곡들과 메나리를 중심으로 휘모리장단과 동살풀이장단을 활용하여 밝고 경쾌하게 영월의 흥과 맛을 표현한 영월랩소디를 비롯한 다양한 곡으로 영월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4:00

아페라와 함께하는 공연 <힐링>

아페라(A-pera)

아리랑과 오페라를 하나로!

아페라(A-pera)는 아리랑과 오페라의 합성어로 동시에 팀의 이름이자 장르의 이름입니다.

정선아리랑의 맥을 잇고 있는 젊은 소리꾼 최진실과 정통 성악 소프라노 남수정으로 구성된 아페라의 이번 공연은 우리의 소리와 오페라가 만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합니다.

15:00

속초사자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속초사자놀이보존회

속초사자놀이는 1950년대까지 북한에서 연희된 사자놀이가 넘어온 이주민속의 하나입니다. 속초사자놀이는 길놀이와 마당놀이가 결합한 형태로 마당극, 전통춤, 전통민요 등 우리 전통문화의 백미가 담겨 있으며 특히 역동적인 춤사위인 사자놀이가 가장 큰 재미입니다. 다양한 춤사위와 통소, 북, 팽고리, 징 등의 민속악기가 어우러져 오감을 만족시키는 속초사자놀이를 만나보세요.



11:00

평창서낭굿농악

강원도 무형문화재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

평창둔전평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평창군 용평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지리적 특성상 영동과 영서의 특성을 함께 갖춘 농악입니다.

빠른 쇠가락과 춤사위의 흥겨움, 소박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영동농악과 영서농악의 장점을 살렸다고 평가받는 평창둔전평농악은 특히 농사풀이와 서낭굿 등이 유명합니다. 강원도 농악의 독창적 세계를 보여주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13:00

함경도 광천 마당놀이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통소 신아우보존회

통소 신아우보존회는 함경남도 무형문화재인 함경남도의 통소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함경남도 지역의 단요 명절놀이인 광천 마당놀이를 재현합니다. 광천 마당놀이는 농악(풍물), 원율(민요재담), 신아우(통소겨루기)로 이루어진 총체민속극으로 평소 자주 접할 수 없는 북한의 문화와 다양한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14:00

절대가인 <歌歌歌>

절대歌인

절대가인은 '당대 최고의 미인'을 뜻하는 기존의 의미와 달리 '노래 歌'를 사용하여 이 시대의 최고의 소리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성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팀입니다.

경기민요, 판소리, 가야금병창 전공자의 3인 3색의 공연으로 관객과 함께 소통하며 국악의 매력으로 빠져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5:00

리듬티키타카

극단 청명

청명은 난타 주연배우, 군악대, 젊은 국악인들로 구성된 퓨전타악 퍼포먼스팀입니다. 대만 국제 드럼 페스티벌, 불후의 명곡 출연 등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리듬티키타카」로 동서양의 악기와 리듬이 만나 퓨전형식의 트렌디한 타악 공연을 펼칩니다. 티키타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객들과의 소통과 호흡으로 완성되는 공연입니다.



16:00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

노리소리강원두레

고성 금단작신 가면놀이는 조선시대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겨울철 세시풍속으로 행해지던 가면놀이로 고성지역의 문화예술 전문 사회적 기업 노리소리강원두레가 무대공연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전승하고 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가면을 머리부터 발목까지 걸친 고성의 수호신들은 재앙을 쫓고 좋은 일을 가져다준다고 하니 월화거리로 만나러 오세요.



17:00

강원유희

(사)한국전통문화예술원 태극

태극은 올해 26주년을 맞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예술단체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 「강원유희(江原有喜)」는 강릉단오제, 동해안별신굿, 농악, 아리랑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강원도의 문화를 한데 모아 새롭게 선보입니다.



11:00

아기자기하게 찾아온 <뒷골목 민요> 퓨전국악 그룹 아기자기

아기자기는 옛 민요들을 대중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버스킹 장르로 민요를 재탄생 시키고 공연하는 21세기 낭만 민요 소리꾼들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아기자기하게, 찾아온 뒷골목 민요」는 듣기 쉬운 대중음악 장르로 새롭게 꾸며진 민요들과 국악을 접목한 커버 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곡 사이사이 보컬의 맛깔스러운 재담이 더해집니다. 마치 조선 시대의 저잣거리 방식 그대로 펼쳐지는 민요버스킹과 함께 조선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다.



11:30

퍼포먼스 난타 퍼포먼스 두우레 난타

두우레 난타팀은 직장인으로 구성된 영동 유일 여성 5인조 퍼포먼스 난타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힘들고 지친 요즘 누구나 공감하며 쉽게 즐길 수 있는 퓨전 난타를 선보입니다. 국악의 전통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만나 더욱 즐거운 시간을 선사합니다.



13:30

BLOOM: 추억이 핀다 시닉

시닉은 더블유닉, 헬로시티로 구성된 힙합팀으로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의 최다 공연 섭외를 받는 팀 중 하나입니다. 청춘과 낭만, 사랑과 여행을 주제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힙합 공연입니다.



13:00

설장구 놀음 열혈설장구

설장구란 농악에서 장구잡이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우두머리인 설장구가 나와 기량을 뽐내는 놀이를 설장구놀이(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 설장구로 부르는데 이번에는 월화거리에서 설장구를 만나보세요.



14:00

코레오, 센트럴댄스 하슬러

하슬러는 춤을 좋아하는 강릉시 초,중,고 연합 댄스팀입니다. 이번 공연은 하슬러만의 특색있는 창작 안무(코레오댄스)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신 K-POP 안무, 레트로 열풍에 맞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90년대 가요에 맞춘 센트럴댄스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흥겨운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14:30

수담과 함께하는 흥통방통 미니콘서트

가야금 앙상블 수담

수담은 손 수(手), 이야기 담(談)의 한자어로, 손 끝자락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따뜻한 음악을 연주하는 가야금 앙상블입니다. 가야금과 국악의 '흥'으로 강릉 시민들과 '통'하고자 하는 흥통방통 미니콘서트에서는 가야금 3중주 연주를 통해 강릉 시민들에게 일상의 흥과 활력을 전합니다.



15:00

전통무용

전통문화기획사 춤빛

전통무용가 이현숙 명무와 춤빛 이연경 명무의 격조 있는 춤을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나라의 풍년과 태평성대를 축원하는 태평무, 살풀이춤 이수자인 이연경이 선보이는 국가무형문화재 이매방류 살풀이춤 그리고 서늘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통 약기의 반주에 맞춰 칼을 들고 휘두르며 추는 경기검무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16:30

도란도란 음악 버스킹 도란

도란은 고등학교 친구 세 명이 모여 서로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시작된 밴드입니다. 실용음악과 국악, 클래식 전공자가 모여 다양한 시도로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음악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러 지역의 아리랑을 메들리 형식으로 연주하는 아리랑 메들리, 보컬 대신 향피리와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로 새롭게 재해석한 군밤타령, 마지막으로 서용석류 피리산조 중 진양을 모티브로 작곡한 도란의 창작곡이자 대표곡 봄애를 연주합니다.



15:30

눈과 귀를 소유하다 퓨전국악 소유

소통할 소(疏), 즐거울 유(愉)

소통하는 음악, 즐길 수 있는 음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는 가야금, 해금, 판소리, 실용보컬 4인으로 구성된 퓨전국악 팀입니다. 소유만의 스타일로 크로스오버된 국악 공연을 통해 누구나 듣고,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공연으로 국악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16:00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신명 나는 해금 은한

해금으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까지와 조금은 다른 해금연주! 해금연주자 은한은 동요, 올드팝, 트로트까지 다양한 곡을 해금으로 연주합니다.

다양한 레퍼토리의 해금연주와 연주자의 신명과 흥이 더해진 해금의 매력에 꼭 빠져보세요.



11:00

흥과 신명의 소리길 우리가락예술원

금강산타령, 뱃노래 등 누구나 알고,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전통민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전통민요를 함께 따라 부르며 우리의 소리에 매료되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11:30

가락데기 (사)아트컬처퍼포먼스 난리

(사)아트컬처퍼포먼스 난리는 국가무형문화재 강릉농악 이수자들로 구성된 팀으로 강릉농악의 가락에 뽕과리,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북과 바라 등 퓨전국악이 더해진 새로운 장르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13:00

아랑, 가야금에 물들어 아름다움을 탐하다 아랑

아랑은 25현 가야금의 수려한 음색과 화려한 기법으로 우리 민족의 흥과 선율을 담은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이는 팀입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임영웅의 사랑을 늘 도망가, 경상도 민요인 밀양 아리랑을 변주한 아랑의 꿈 등 대중들에게 친숙한 민요와 대중가요로 마음의 휴식을 전합니다.



13:30

춤의 향연 강릉파인무용단

강릉파인무용단은 언어의 장벽이 없는 장르인 무용, 한국의 미와 문화를 소개하는 팀입니다. 궁중무용에서 파생된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화관무, 각 지방의 검무를 재해석한 새로운 검무,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 춤인 부채춤을 선보입니다.



14:00

파이어댄싱 파이어앨범

불이야! 파이어앨범은 불을 이용해 춤을 춥니다. 파이어앨범이라는 이름처럼 앨범 속에 담고 싶은 메시지를 많은 아티스트로 스트리트 댄스, 아크로바틱, 트릭킹 등 다양한 춤을 불을 이용해 기존의 틀을 파괴하고 새로운 불거리로 전율과 감동을 선사하는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14:30

바람타고 오죽곽은지국악연구소

오죽곽은지국악연구소는 국악 전공자들이 모여 강릉지역의 국악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민요인 도라지와 제주도 푸른밤, 여우비, 아름다운 나라 등 대중가요로 국악의 아름다움과 대중성을 동시에 선보입니다.



15:30

춤북 더얼쑤

The 얼쑤! 는 흥겨울 때 장단을 맞추며 변화 있게 내는 소리인 '얼씨구절씨구'의 줄인 말로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세계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 중인 팀입니다. 이번 공연은 양손에 채를 들고 추는 춤북, 입타령(구음)을 통하여 대중성을 지닌 부채입춤, 한국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자연을 노래한 "아름다운 나라" 선율에, The 얼쑤의 색을 입힌 무대로 알차게 꾸몄습니다.



15:00

학산오독떼기와 민요 강원민요연구원

강원민요연구원은 경기민요와 강원토속민요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강릉의 농요인 학산오독떼기와 우리나라의 대표민요 메들리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신명 나는 공연을 펼칩니다.



16:00

나와라 똑딱! 이야기 한마당 더문화로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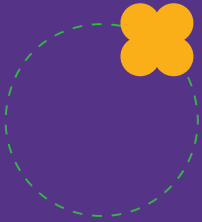
문화로움은 동서양의 여러 악기와 판소리, 무용을 아우르는 퓨전국악으로 국악을 알리는 팀입니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야금 독주곡 모자이크와 9월의 선선한 날씨에 듣기 좋은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을 가야금 반주와 타악, 그리고 실감나는 연기로 구성해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16:30

퓨전국악 플레이그룹 the 아라

플레이그룹 THE아라 & 양상불현이 만났다!

이번에 선보이는 공연 「현·타 오는 소리」는 THE아라와 양상불현의 협연 공연이며 현악기(가야금, 바이올린, 기타)와 타악기(장구, 핸드팬, 피아노, 드럼)를 함께 연주합니다. 두 팀의 협연, 그리고 동서양 악기가 어우러져 더욱 멋진 음악적 시너지를 내는 이번 공연을 놓치지 마세요.



2022

단단단 페스티벌

문의 033-641-1593 |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예매 www.gn.go.kr/dano



강원도



강릉시



새강릉단오제위원회